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8호 [무게 제2597호] 주제 107 (2018)년 4월 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모두 다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주어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승으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차대한 문제로 틀어쥐고 혁명전승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배속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여세계 키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승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전승교양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특해운성, 수해방정성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에게 학습열풍을 일으켜 그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잘 알고 대를 이어 깊이 빛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당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교조적로작 《주체외 혁명전승을 빛내게 계승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절세위인들의 로작의 진수를 깊이 체득시켜 그들이 백두의 불멸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

장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여러 계기와 공정을 리용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맥박치도록 하고있다. 생물공학분원, 열공학연구소, 생공기계연구소 당조직들에서는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목표와 해설모임 등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커다란 실효를 거두어 하고있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전승교양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립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백두산지구를 혁명전승교양의 대진당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항강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더 높고 정중히 모시며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 혁명사적지를 보다 훌륭히 꾸러주기 위한 사업에서 도출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혁명사적부분 일군들과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김정일동지영웅적기적자력정생의 당위원회, 삼지연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뜨겁게 이어있는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적지들을 위한 전투투쟁마다에서 비약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있다.

항강남도당위원회에서는 도 혁명사적관강사들로 예술선동대를 조직하여 도안의 영도적단위들과 중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도에 뜨겁게 이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와 남포시, 신의주시, 해주시, 강서구역은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방송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인민경제 선봉부문 당조직들에서 혁명전승교양사업을 즐기게 벌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자력정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경제전선전반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주기도록 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일군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역할을 높여 전투투쟁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밀어 창조되여나오도록 하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을 안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진격정신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안고 현장을 달려나가 진격정신사업과 무를 마추고 대중의 심장을 뒤흔트려 해주는 정치사업을 왕성한 힘으로 진행하여 진격정신사업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판행을 위한 투쟁에 총돌려, 투쟁전진해나가고있다.

순천, 개천, 덕천, 북창, 독장지구를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각지

관공정들에서도 당일군들이 경각감에 들어간 관공정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항일투사들이 발휘한 백두의 불멸의 혁명정신, 자력정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지 대학의 당조직들에서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전선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대학당조직들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적맛을 알수 있으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해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정신을 빛내여가는 길, 영랑년월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오신 뜻을 받들고 대학생들이 혁명전승교양사업에 대한 참관과 당사자를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고 몸과 마음도 단련해나가고 있다.

혁명전승교양으로 대중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불멸의 신념을 단련시켜주는 각지 당조직들의 힘찬 사상공세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수없이 자라나게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투쟁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꽃이 새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철

### 철의 기지에 울려 퍼지는 경제선동의 힘찬 포성

황해북도에서

공화국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철의 기지 황해북도 황해북도에서 경제선동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집중강연선전대가 황해북도집중강연선전대 첫 강연선전을 진행한 때로부터 지난 수십일동안 다양한 형식의 선전선동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새전선에 헌신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철의 기지를 위한 힘찬 물결전에 떨쳐나섰다.

대중의 양방향 열의에 맞게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이곳 로동계급을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열의 돌파구를 열어나

가기 위한 투쟁에 고무추동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맞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도와 시, 군당위원회일군들과 강연강사들을 망라한 집중강연선전대를 꾸리고 선전활동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민첩한 작전력에 지난 1월 도와 시, 군집중강연선전대는 철의 기지를 울려 퍼지는 황해북도집중강연선전대 첫 강연선전을 진행한 때로부터 지난 수십일동안 다양한 형식의 선전선동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용광로직장 등 여러 단위에 나가 혁명적인 총공세로 철강재료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용해공과 함께 일도 하고 힘있는 노래도 부르면서 그들을 생산적양양으로 불려내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도와 시, 군집중강연선전대의 명렬한 강연선전활동은 철의 기지 황철을 들었다고 하며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게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파견된 경제선동대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한편 방송선전차와 이동방송기계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그 어디에서나 대중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화신선동의 포성이 새차게 울려 퍼지게 하였다.

도에출단의 예술인들과 도작가동맹위원회의 작가들도 들끓는 현실에 몸을 담고 생산자대중을 격려하고 위훈으로 불려내어오는 예술선동활동과 창작전투로 낮과 밤을 보내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안의 시, 군에서 주체철생산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의 투쟁의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선전선동활동들을 명렬히 벌려나가고 있다.

철강재생산으로 뚫고있는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새로운 위훈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황해북도당위원회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힘있고 기백있는 선전선동활동은 생산자대중의 가슴가슴을 새한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끓어오르게 하였다.

특파기자 신 경섭

### 1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

토지정리 열거대

삼지연군을 농촌전선의 종합적기회화 완벽하게 실현된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밀데 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토지정리열거대 항강도당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수많은 잡관목과 토막, 토랑을 처리하여 1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판행하려는 단단히 결심한 당과 인민의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반민대계의 애국위업입니다. 우리는 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려단정치부에서는 드넓은 백

두대지를 사회주의국가의 땅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장으로 불려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물결대원들 모두가 토지정리열거대 항강도당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판행하려는 단단히 결심한 당과 인민의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반민대계의 애국위업입니다. 우리는 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려단정치부에서는 드넓은 백

량강도려단에서

의 전투준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였다.

전투현장에서 수습자의 힘의 회와 보여주기를 진행하고 작업에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켜 개간전투계획을 공정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 혁명적열의로 가슴을 새차게 불어넣어 줄데 대한 투쟁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이 힘있게 떨쳐나오면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모든 대대들에서는 비탈이 심하고 토질상태가 각이한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토지개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김형직군대의 지휘관들과 물결대원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토지정리전투실적을 올렸다.

현의 불길은 운봉군대대가 벌이는 토지정리전투에서도 타올랐다.

백암군대대에서는 로력과 기

계화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토지정리를 단숨에 해제했다.

그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자께서 뜨겁게 이어지는 삼지연군 중흥농장에 기계화포문을 펼쳐놓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감산군대의 지휘관들은 불도발을 타고 전투의 앞장에서 달려나오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에 남다른 애정을 들이밀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삼수, 풍서군대의 물결대원들도 백두의 엄혹한 자연환경속에서도 토지정리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물결대원들은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의 피를 떨쳐내며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진제시 200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랑스런 토지정리성과를 빛내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주



혁명적 총공세의 불길높이 생산물적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 철도를 힘있게 지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의 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선봉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 있다. 성, 중앙기관들의 일군들은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계속 유지하며 선전선동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은 철도지원사업을 자기 단위, 자기

지도국의 일군들과 련속한 노력을 최대한 효과적 리용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철도운수부문에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밖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함으로써 많은 자재와 지원물자들을 수차례 걸쳐 철도운수부문에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정 경철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 물 확보 사업에 큰 힘을

각지 능촌들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공을 높이 올릴 불타는 열의안고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물확보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이입니다.》

물확보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명심하고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일군들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하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계대 제1선참호를 지켜냈다

는 자각안고 물확보사업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도의 일군들은 지난해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확보전투계획을 높이 세우

고 이 사업을 전공적으로 밀고나갔다. 이들은 저수지능력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체할 목적으로 굴착기와 유압식삽차,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물건기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심장에 불을 다는 화신선정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근로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어 하루공사목수는 1.5배 이상 넘쳐 수행되었다. 이들은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3만 5000여m<sup>3</sup>의 토랑을 처리하여 저수지능력을 확장하고 700여m<sup>3</sup>의 콩크리트기구를 하여 수문과 물다리를 비롯한 29개소의 구조물들을 완공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많은 면적의 논밭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며 물확보사업공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첫제도 물결

도 셋제도 농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긴 도와 시, 군 일군들은 물확보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로력과 자재를 총집중하도록 하였다.

연안군과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결의 물결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어만민에 방대한 토랑을 처리하여 총연장 길이가 수십km에 달하는 물결기사와 물결결구수를 짧은 기간에 해제했다. 결과 물결의 물결과 능력은 1.2배로 높아지게 되었다고 많은 면적의 논밭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

평안북도에서도 물결기와 양수설비수리를 동시에 내밀어 물을 채워넣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웠다. 또한 시,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확보사업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각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 빛내기 위하여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전 철일

### 새차게 내려치는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물적전을 힘있게 벌려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북창정공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조전투장들과 로동자들의 동발나무라도 더 생산하여 보내줄 일념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평양블록공장에서

평양블록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종 규격의 용판과 부재, 블록생산을 2.5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삼지연군구리기와 원산감마해안관방지구건설에 필요한 수천m<sup>3</sup>의 용판과 수백m<sup>3</sup>의 부재, 수만장의 블록과 계획보다 앞당겨 생산보장하고 1.4분기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은 대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아직까지 나무모기와 사이나르기 등의 작업공정간 편제를 강화하면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화, 신앙, 냉면, 대중목공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전투를 즐기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산란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초식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화신선동으로 벌려내서 생산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장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에서 기술적요구를 정확히 지키고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장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장들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위생성이 철저히 담보된 된장, 간장을 지체없이 출하할수 있게 하고있다.



# 만경봉이여, 태양의 력사 길이 전하라

푸른 소나무 끝없이 설레이는 만경봉!  
이 강산의 푸른 기상 여기에서 부터 빛받치는가, 이 세상의 승업함이 여기에 다 비쳤는가.  
오늘 우리 인민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만경봉은 아름다운 경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쉬임없이 태양의 성지를 찾고있는 총정의 대하,  
그같이 없는 대하에 몸을 싣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고향집에 이어 만경봉으로 기행길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이 일대의 일만경치가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고 성지에 깃든 만단사연들이 새로운 감흥을 안겨주었다.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 만경대! 만국의 비운이 삼천리강토를 뒤덮고 산천도 사람도 물론이 몸부림치던 수난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시어 성장의 결실을 내디디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만경대는 반반면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입니다.》  
혁명의 성지, 여기에 굽이굽이 뻗어간 참관길들을 따라건너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견고결오신 애국헌신의 로정이 자욱자욱 밝혀오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만경봉 숲속의 싱그러움 황기초차 우리의 가슴을 승업한 감정으로 젖어들게 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을 나서 유서깊은 성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우람한 바위가 솟아있는 곳에서 멈춰서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의 어린시절에 지을수 없는 흔적을 남긴 군함바위였다.  
오랜 세월 누구도 눈여겨본적 없는 이름없는 바위였다.

리창원장사의 말에 의하면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에 밀려온 부분이 잠겨온 한 이 바위가 꼭 파도 물 헤가르는 군함같다고 하신 때로부터 군함바위로 불리우게 되었고 여기에서 일제를 무찌르는 군사노력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  
어린시절에 벌써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실 슬기와 용맹을 키우시는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천품이 너무나 놀라와 해가 저물도록 자리뜰음을 안하고 군사노력을 바라보곤 한 동네어른들이었다고 한다.  
항일혁명투쟁의 진두에 서서여 강도 일제를 격멸하시고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군대와 인민을 산악같이 일으키시어 《최강》을 뿜내던 침략자 미제를 쳐갈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우리 수령님!  
총대를 틀어쥐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력사가 바로 여기 만경봉 기슭의 군함바위와 잇닿아있음을 참관자들은 깊은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어린시절부터 만사람의 가슴에 새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은 가리울수 없는 해빛과도 같았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쉼바위가 자락을 펼치고있었다.  
쉼바위에서 신바람나는 미끄럼 타기를 더없이 즐기던 어린시절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이 놀이를 아예 그만두신 사연을 들려주셨다.  
어느날 밤 희미한 등잔불밑에서 밤 새 무명을 짜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목격하신 위대한 수령님, 어머니께서 제대로 잡으시지 못하시고 무명을 짜신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시며 웃이 또 해질새라 그처럼 좋아하시던 쉼바위기도 당장 그만두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가분들의 모습만을 보셨는지 아니었으리라. 우리 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체험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그러도 가슴에 사무친바위이시었기에 우리 인민들의

바른 웃음을 위하여 한평생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것 아니라.  
바로 그로 하여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현대적인 유희장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황홀한 소년궁전들이 여기서부터 뿌리내린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는 만경봉으로 오르는 길에 들어섰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의 울창한 숲, 소나무우듬지들사이로 흘러내리는 푸사한 해빛, 그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한껏 일새를 켜는 꽃관목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고운 새들의 지저귂소리...  
봄바람에 푸른 잎을 씩없이 하느적거리는 무성한 소나무들, 말부리를 휘둘러 푸른빛을 물들이는 수풀들을 안고있는듯한 만경봉마루에 오르는 길은 우리를 승업한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어찌 무심히 걸을수 있으랴.  
그리움에 젖어 한자욱, 뜨거움에 젖어 한자욱 옮기는 걸음마다 따라서는 나무들은 승업한 기념비만듯 싶고 이따금 귀전을 스치는 한줄기 바람소리조차 기나긴 세월의 추억을 흔들어 깨우는듯싶었다.  
우리는 무지개를 잡으시려 우리 수령님 오르시었던 푸른 소나무앞에도 서보았다.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만경봉에 오르신 우리 수령님께서 소가 제발로 의양간을 찾아가는것을 느끼지 못하시고 독서에도 열중하신 그날의 학습터에서도 우리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만경봉은 우리 수령님께서 오서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걸출한 혁명가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키우신 소중한 곳이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즐기는 리갈라져도 일세 푸르침청한 소나무들, 불요불굴의 혁명 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이 어린 푸른 소나무의 기상에 원대한 리상과 포부, 열렬한 애국의 뜻을 엮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의 고비들이 증중첩첩한 항일의 혈전만 리길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 만경봉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마음깊이 간직하시고 전설적인 승리의 기치를 수놓으시었다. 밀영의 우풍 불가에서 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백절불굴의 신념, 필승의 믿을 안겨주시던 나날에도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그리운 만경봉의 소나무가 언제나 우뚝 솟아있었으리라.  
눈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역센 기상으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음을 조국전군의 자의만대로 격려히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  
후더운 가슴으로 그 한구두한구두를 뜨겁게 안아붙추록 우리 새대가 맞아보지 못한 항일혁명의 눈비, 걸어보지 못한 시련의 힘산증명들이 승업히 밝혀와 심장이 새차게 동공했다.  
강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묘한 수를 써서 늘 상대를 이기곤 하시던 씨름터에 대한 해설을 들은데 이어 우리는 만경봉마루에 올라섰다.  
만경봉!  
사람을 둘러보니 약동하는 내 조국의 모습이 장엄한 서사적화국처럼 넘쳐나게 안겨들었다.  
새 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의 불길이 타올랐던 강산의 노을비친 하늘, 주체사상강,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하여 웅장장중한 자태를 자랑하는 수도의 기념비적건축물들, 긴 팔을 내밀치고 엄없이 움직이는 기중기들과 씨름임으로 들끓는 기쁜터 대지, 곳곳에 우거진 옥목과 풍치수려한 산천경계, 파란 띠를 늘린듯한 새 아름다운 대동강...  
우리가 선 력사의 이 봉우리와 더불어 만경대가문의 위대한 애국의 의지와 원대한 포부가 얼마나 장중한 메아리로 시대를 격동시키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뜻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신 위대한 장군님!  
해방 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경숙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봉의 소나무를 바라보시며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현몽을 이으실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셨고 아름다운 이 땅에 훌륭한 탁월한 항일의 혈전만 리길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 만경봉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신념의 기치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  
그 나날 폭작과 켈기밭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넘고헤치신 높고 험한 산밭들은 그 얼마였던가.  
언제인가 만경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남산을 바라보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생각한다고, 그 시에서 제일 가슴을 울리는것은 3원이라고 하시면서 시구절을 조용히 읊으시었다.  
...  
이 한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써워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산을 찾아올게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인민의 품과 리상이 찬란히 꽃피고 있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그날에 더욱 깊이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신념의 분출임을 우리는 천하제일봉인 만경봉에서 심장으로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봉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글히신 애국의 의지로 하여 이 땅위에 백승의 력사가 꽃피어 흐르고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기상이 있는것이다.  
만경봉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은 새차게 눈뻘뻘하였다.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노도쳐 나야 할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는 만경봉.  
진정 만경봉은 우리 민족의 통일변혁의 기상을 만대하여 이어주는 봉우리, 조국과 인민의 부강할 때를 저 하늘에 발들어 올린 금수강산제일봉, 천하제일봉이다!  
력사의 이 진리를 확증하며 만경봉의 푸른 숲은 끝없이 설레이는  
글 본사기자 한영민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 인민의 행복을 첫자리에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는 감동깊은 사연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다.  
아래의 이야기도 그 하같은 사연들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헌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명도에 구현하여 현실보다 오히려 인민적수행의 승고한 한생이었다.》  
어느해 봄날 위대한 수령님을 뵈다가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이 판상용담 한마리를 구해왔을 때 있는 일이다.  
어느 날들과 달리 발뒤축에 여러가지 색깔의 털이 길게 난 것이 걸을 땀 여간 재롱스럽게 남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담이었다.  
늘 파죽진 집부로 피로가

경쟁이시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책의 한순간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시며 피로를 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군들은 그 담을 정원에 놓아주었던 것이다.  
어느날 정원을 거니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저 담이 무슨 담인가고 물으시었다.  
한 일군이 털담이라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이름을 따라주시더니 1년에 알을 알거나 낳는다고 물으시었다.  
일군으로부터 1년에 알을 80알정도 낳는다는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잠시 서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름 200~250알을 낳는데 80알을 낳아서 어디에 쓰였는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은 이담은 판상용이라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담이야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보거나 좋아서 무얼 하오, 나는 아무리 보기 싫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 담이 있으면 매일 보러 나오겠소, 나는 1년에 알을 한 400알 낳는 담이 있으면 좋겠소, 그러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을 공급할게 아니요...  
일군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못사람들 누구나 감탄하는 최후의 판상용담을 놓고서도 아름다운 대화를 앞서 알았기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라.  
인민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에게 먹여 주는것,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본사기자 립정호

##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몸소 밝혀주신 문제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한 농장의 강냉이밭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해전부터 강냉이일이 결 마르던 현상이 그해에는 류달리 많이 나타나는데 주의를 들리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냉이일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풍기판과 갈기때문에 잎이 푸르십시오하여야 빛합성이 잘 되는데 강냉이가 제대로 수성도 되기 전에 잎이 갈라버렸으니 어떻게 잎이 제대로 여물 수 있었는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빨리 그 원인을 찾는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강냉이일이 마르는 원인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도무지 그 원인을 알수가 없었다.  
몇달후 해당 일군들을 부르신

합되어있기때문에 토양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분을 좋아하는 병균이 생길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 강냉이일이 결마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일군들이 즉시 토양분석을 해  
깊이 새겨주신 과학농사방법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태기를 팔던 어느 농장의 포전을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포전들을 이속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일군에게 문득 포화수식물대기를 해보았는다고 물으시었다.  
당시 농장에서는 한때 시험적으로 포전들에 포화수식물대기방법을 도입한 결과 벼의 생육에서부터이러나 알곡수확고도 현저히 높일수 있었다.  
그러서 그해에도 모를 낸 포전들에 포화수식물대기방법으로 물을 대었는데 물이 적고 온도가 낮아 예년 벼모들이

보리 정말 땅속에는 여러가지 병균들이 서식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시신 해박한 지식과 미묘한 관찰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송구스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장은 불행에는 기운이 낮기 때문에 벼모들이 잘 자라지 못하니 담수식물대기를 하고 아지기를 치는 시기에는 포화수식물대기를 하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고온피해를 막을수 있게 자주 찬물을 갈아주어야 한다 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은 모든 농사일을 자기 고장의 특성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그의 소중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해나가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연구심이 없이 막무가내로 일하는 지난날이 돌이켜져서였다.  
송구스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장은 불행에는 기운이 낮기 때문에 벼모들이 잘 자라지 못하니 담수식물대기를 하고 아지기를 치는 시기에는 포화수식물대기를 하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고온피해를 막을수 있게 자주 찬물을 갈아주어야 한다 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은 모든 농사일을 자기 고장의 특성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그의 소중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은갖 꽃들이 향기를 풍기는 봄날의 일요일도 좋고 뜨겁게 달아오른 바다가백사장이나 강변에서 즐기는 삼복철의 일요일도 좋고 비껴계수 흐르는 산속길을 산보하며 단풍은 산경계를 부강하는 가을철의 일요일도 좋다.  
홀몰하게 꾸려진 문화휴식터들에서 보내는 일요일은 또 얼마나 즐거운것인가.  
그래서 일요일이면 유원지와 문화휴식터, 바다가고 명산 등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일요일을 모르시었다. 오히려 어느날보다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나가시는데서 보람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한번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일념이 넘은 고강에도 공경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수십년전 9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매일은 일요일인데 집에서 다 쉬도록 하라고 당부 하시었다.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따로 계획하신 일이 있는줄로 생각하시었다.  
일요일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일군을 찾으시어 몇개 단위를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것이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며칠째 계속 밤늦게까지 일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피곤을 푸셨으면 하는 생각이 앞섰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만이라도 쉴수있고 오후에 떠났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머리를 저으시며 내가 언제 일요일이라고 하여 집에 있어본 일이 있는가고, 어느때는 일일이 바빠 현지에 자주 나가지 못해도 일요일에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 현지를 료해하고 인민들도 만나보고싶다고 하시면서 자신께 이상 더 만족한 일요일은 없다고, 이제 자신의 휴식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인민들을 만나는것을 제일

즐거우 휴식으로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얼마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산협 동농장을 찾으시었다.  
뫼밭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게 된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확이 높은 새로운 우량품종으로 종자를 생산할때 내산 문제, 청산리를 문명하고 현대적인 농장으로 꾸미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이 틀어지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고 다시 길을 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시었다. 저녁이 다되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현에서 인민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생활현황을 일일이 료해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구나 즐기는 일요일 하루를 이치럼이 현지지도의 길에 바치시었다.  
그러나 수령님의 일요일 하루는 이것으로 끝났것이 아니었다.  
본사기자 재희성

## 박봉주 동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정포지구축산기지 현지료해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운영현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후복구사업과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훌륭히 꾸릴 일념으로 높은 이상과 열정을 다하여 건설사업을 이룩하고있다.  
박봉주동지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민력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드세한 공작을 벌려나가고있는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경제의 혁명정진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건설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박봉주동지는 또한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돌아보면서 종축제계를 바로세우고 집집승사양관

리과 출판비판리과 짜고들어 고기와 알, 젓방산을 늘일데 하여 강조하였다.



박봉주동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현지료해



# 양어를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자

## 좋은 방법론과 치밀한 조직사업

평양에 기계공장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방법론있게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평양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일꾼들이 과학기술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중시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사화에 과학기술혁신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세인사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았던 공장 책임일꾼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융합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현행사업과 생산이 바쁘다 하고 하면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낮은 적게 돌리고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 찾아와서는 국가망치로나 열람하고 원격교육 대학강의를 받는것으로만 그치는 종업원들도 있었다.

일꾼들은 그 원인을 과학기술 보급실이 훌륭히 꾸러진데 만족하면서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못한 자신들의 일본색에서 찾았다.

이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시대가 바라는 높이에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종업원들을 시범단위로 하여 직종별, 작업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강의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한것이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일꾼들은 작업법의 공정기사가 새끼메기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다매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작업법원칙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강의는 받은 후 종업원들의 모든 종업원들은 새끼메기기사규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게 되었다.

공장일꾼들은 이를 계기로 모든 작업법에서 과학기술강의를 풀어들어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법에서 경험이 있고 기술이 높은 성원들이 직접 강의를 작성하여 강의에 출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강의시간에 질의응답도 적절히 배합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니 공장종업원들 모두가 과학기술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보급실 보급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것도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는 데서 공장일꾼들이 중시한 문제이다.

이미 공장에는 20여만전에 달하는 최신양어기공자들과 국내외에서 이룩된 양어경험자료로 이루어진 양어강의실과 우월한 대역사 주 1차 강하게 총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인식정형에 대한 료해를 진행하였다.

제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되거나 누누나 다 과학기술보급실로 찾아와 학습하는 기풍이 확립되었다.

공장에 세차게 휘몰아친 실례전의 열풍속에서 양어를 보다 과학화할수 있는 많은 기술혁신안들과 창의안들이 창안되었다.

종업원들속에서 종전에 비해 제작원가와 재료를 훨씬 줄일수 있는 새끼메기기선별기개조안이 총분히 보장할수 있는 방도들이 착상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이룩된 성과이다.

우리는 이 공장의 현실을 놓고 일꾼들이 좋은 방법론과 치밀한 조직사업으로 과학기술보급실을 실속있게 운영할 때 대량의 양어생산은 비현실적이라고 양어의 과학화와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글 최영조  
사진 본사기자 김진영

천 내 군 종 어 사 업 소 에 서

최근 천내군종어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장들을 정비보강하고 현대화하며 물고기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익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사업소에서는 가까이에서 종어생산에 가지고있었지만 새끼메기기선별기에 원만히 리용할수 없었다. 성원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야외에서 받아놓았다가 다시 새끼메기기당으로 보내주는 과정에 수질이 변하여온 것이다.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새끼메기기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결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평범이 자연외식물질을 따라 새끼메기기까지 직접 흘러들게 하였다.

수질문제를 해결한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새끼메기기들의 온도보장을 위해 창조적치해를 합쳐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해당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능률적인 무동력보이러를 제작실시하였는데 태양열 물가열기까지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새끼메기기생산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갖추어놓은 사업소에서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 박차를 가하였다.

온도수감부들과 산소측정설비, 폐하측정설비들을 리용하여 새끼메기기의 생산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는 계계를 세우는 과정에는 여러차례의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일꾼들에게 사활 신천한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작은 힘이나마 바쳐간다는 충정의 열념으로 사업소종업원들은 부단히는 난관을 맞받아나갔다.

이들은 자동역이공급기를 비롯하여 어떻게든 생각하면서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면서 짧은 기간에 사업소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음으로써 물고기생산을 과학화, 집약화실현에서 큰결실을 맺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을수 있게 되었다.

사업소일꾼들은 종업원들이 현대적으로 꾸러진 생산공정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높은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 현대양어발전추세와 관련한 자료들을 집중시키고 종업원들 모두가 새 기술의 주인, 발전의 주인으로 준비되도록 방비중있게 짜고들었다.

이 나날 사업소에서는 지난시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비약적성과들이 일어났다.

양어못의 수질정리와 물고기생장에 알맞는 생육조건들이 더 잘 보장되어 지난해에는 많은 량의 새끼메기기와 메기를 생산하여 도와 군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생산전공들을 비롯하여 사업소의 면모가 몰라보게 일신되었으며 미꾸라지양어못과 미꾸라지온실못이 새로 꾸러져 사업소의 생산터전은 더욱 강화되었다.

새끼메기기생산을 지난시기에 비해 거의 3배, 비육물고기생산을 2배나 늘여왔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천내군종어사업소에서는 이룩된 성과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다. 실현한단면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순 천 화 력 발 전 소 에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순천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정양소안에 있는 양어장의 모습은 마치 한쪽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아찔이런 물안개가 감도는 이곳에서는 잉어를 비롯한 많은 어종이 꼬리치며 노닐고있다.

양어작업반에서는 메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기르면서 자체의 힘으로 알개우기를 진행하고 소화흡수율이 높은 펄라이트를 만들었고있다.

작업반구내에서 우리는 김상철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두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렸다.

한가지가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르기장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어느날 작업반의 메기거르기장치를 구제적으로 알개운 발전소일꾼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사실 최근에 건물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였지만 생산은 융합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꾼들은 양어작업반원들과 격의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수질을 개선해야 메기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화학직장을 돌아본던 그들의 눈길은 이곳에 있는 어느 한 거르기설비에 있었다. 한것은 이 설비와 같은 거르기장치를 만들어 리용하면 양어장 생산공정에 수질이 좋은 물을 보낼수 있을것이었다.

발전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거르기장치를 제작도입하는 사업을 박력있게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거르기장치에 강철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메기생산의 양공정에 거르기장치 설치되어 온을 내게 되었다.

결과 양어작업반에서는 수질상태가 좋지 못한 장마철에도 물고기의 병발병을 극력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먹이소비단위를 낮춘 문제였다.

이곳 양어작업반원들은 따라와서기, 파라메치움운동, 경험 관찰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새

## 그물우리 양어에서 자연먹이보장

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

그물우리양어는 자연먹이를 리용하기때문에 그 경제적효과성이 높다.

하지만 일정한 구역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는것으로 하여 우리인의 자연먹이양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그물우리인의 자연먹이양을 늘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떠살이생물을 기른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은 더한 그물우리양어에서 이 문제를 대

보장하여 종어들을 충실히 재우고 메기와 붕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생육기일을 늘여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양어에서도 과학과 기술을 떠나서는 한결속도 견진할수 없다.

이것을 자각한 관리공들은 앞

많은 수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물우리는 물밑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천천히 옮겨야 한다.

비료를 주어 물속의 영양원소를 보충해주는것도 자연먹이보장에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진 가루형태로 된 인공먹이를 보충해주는것도 좋다. 자연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인공먹이를 적당히 보충해주어야 물고기들의 성장을 촉진할수 있다.

중앙양어연구소 실장 김강남

이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융합한 힘을 넣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양어를 군중적으로 벌리는데 대한 당정책을

이들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융합한 힘을 넣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양어를 군중적으로 벌리는데 대한 당정책을

이들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융합한 힘을 넣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양어를 군중적으로 벌리는데 대한 당정책을

##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비약의 한길로 내달려온 금지

창립 60돐을 맞이한 동대원은하피복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지난 4월 1일 동대원은하 피복공장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창립 6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60년, 결코 적다고 볼수 없는 세월의 결실이다.

천리마대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온 나라에 타탄지던 시기 반체제기풍을 비롯한 설비들을 차려놓고 리용 생산피복공장으로 첫걸음을 뚫은 공장이 오늘날의 믿음직한 피복가공기지로 전변되었다.

공장이 걸어온 전진과 비약의 60년력사를 되돌아보노라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크지 않은 피복공장의 강화발전엔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결실결실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하고도 위대한 손길이 가슴뜨겁게 어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유물,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란히야 합니다.》

공장은 창립 첫째부터 말까지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전진의 보폭을 힘있게 내걸었다.

전진의 패배를 가지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일꾼들 사를 벌리는 속에서도 여러곳에 분공장들을 꾸려놓고 이른

을 폭넓게 습득하였다. 강의본 만이 아니라 세부작업공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해마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공장의 기능공대원은 날로 늘어갔다.

이 나날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1970년대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축하지표문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으며 천리마공장의 영예도 쟁취하였다.

공장의 강화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78(1987)년에는 생산전물체건공사를 벌리고있는것을 료해하시고 총이 크게 내밀어 피복가공능력에 큰 공장으로 위촉해주도록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서 단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전물체건공사가 완공되어 나날의 피복공장에서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회전식직기계를 비롯한 설비, 장치들을 최근 90대나 창안 제작하고 각종 조리기구들을 110여개나 생산에 도입하면서 창조와 혁신의 한길을 따라 걸음출쳐나갔다.

우리 수령님께서 풀어들어 마려오셨던 나라의 믿음직한 피복가공기지가 당의 경제발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한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에서 편이 새 기록을 창조해나갔다.

주체102(2013)년에는 피복제품생산에서 전례없는 최고기록을 창조하였고 원단소비비율을 낮추어 절약한 많은 재료를 여러가지 피복제품을 만들어 혁명사적품과 인민경제중요부문에 보내주는 로적취워훈도 세웠다.

창립 첫째부터 60년세월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겼음이 수행한 공장은 피복가공의 질적높이에 있어서나 생산량에 있어서나 나라의 피복공부문에 손꼽힐 정도로 비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60년력사의 걸고걸기에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뿜었이 새겨놓았다.

위대한 사랑의 그 품에 운명의 피를기울이고 당의 경제발전정책관철에서 기수가 되어 내달려온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투쟁행로는 얼마나 긍지높은 것인가.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조와 비약의 역사를 수놓아온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오늘 당의 경제발전정책관철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 철 옥

## 4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4월 중순에 우리 나라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교차적으로 받으면서 예견된다.

그러므로 중순평균기온은 전반기적에서 평년보다 약간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간 많았다.

농사에서는 비모판서리리기와 모판서리리를 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비모판서리리를 잘하여야 한다.

원근근근은 낮은 온도에서도 전답성이 높으면서 생육기간이 긴 품종인 경우 4월 초까지, 중간중종인 경우 4월 상순까지 씨뿌리기를 끝내야 한다. 낮은 온도에서 전답성이 약한 품종들과 생육기간이 짧은 중간중종인 경우 평균기온이 10℃정도 되는 시기부터 씨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영양모나 영양생장모를 5일정도 되는 모기러하는 경우에는 중간중종이나 중간종을 선정하여 4월 상순, 중순에 씨뿌리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농비전력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판서리를 하는 경우보다 모판서리를 하는 경우 1.4일 줄이면서도 모를 튼튼히 길러내야 한다. 씨백을 씨앗들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번 씻고 씨기름기장에 무쳐

높이 받들고 재처리장을 정리하여 얻어진 3정보의 부엽지에서 생산한 원료로 식용섬유를 만들고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가금배설물을 균제리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먹이를 해결하고있다.

특히 물고기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융합한 관심을 돌려주 소한 이상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당하는 대책들을

실속있게 세워나갔다.

하여 지난해에도 양어장과 실내양어장에서 메기와 붕어를 비롯한 수백kg의 물고기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열생산직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안으로 양어장면적을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확장하며 물고기생산을 대폭 늘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전력생산투쟁에서 모범적 열생산직장이 양어에서도 앞선나갈수 있도록 힘써 지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